

# 학교 놀이터에서 맘껏 뛰놀아라

### 전북교육청, 도내 초·중 18곳 학생·교사·학부모 참여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

학교 안에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는 아동우호적인 놀이공간이 마련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도내 초·중학교 18개교에 청소년 놀이공간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학교 놀이공간 조성학교는 전주·군산·익산 각 2개교, 기타 11개 시·군 각 1교씩 총 18개교다. 전주시 지원 1

개교 포함이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대상학교를 모집 선정했으며, 4월에는 선정학교 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 학교별 학생 참여단을 조직하고 3차례의 아동참여 워크숍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 구성원 건축사와 함께 놀이보고 직접 설계에 참여토록 하는 등 학교놀이공간 선정, 설계·신축과

정에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안전한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놀이는 배움이자 성장이다. 학교 안에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놀이 공간을 조성해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며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 모험과 협동 상상력을 키워가는 배움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까지 전주시·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전주덕일초 ‘덕일꿈키움터’, 중산초 ‘뽕까망 놀이터’, 전주송북초 ‘송북초참새방앗간’, 전주대성초 ‘대성초비밀기지’, 전주인선초등학교 ‘인선사립탈탈’, 전주동북초 ‘동북꿈틀 ZONE’, 전주인후초 ‘인후놀벤저스’ 등 7개 학교에 학교 놀이공간을 조성한 바 있다.

/정은성기자

### 전주비전대 사업추진위 개최 경제 활성화·고용확대 고민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 후진학년도형 사업단은 18일 대회의실에서 전북 산업체 총사자 대상으로 평생 직업교육과정 운영 성과 창출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오주 전북도청기업지원과 팀장 김인수 노사별전제단 소장, 이운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등 외부 전문위원과 홍순직 총장 김순정 전북지역직업교육센터 부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사업단은 수요자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재취업할 수 있는 맞춤형 자격증취득 지원을 통한 고용확대를 비전으로 수립했다.

김범구 사업관리팀장은 “지역경제활성화 솔루션을 위한 5대 핵심 추진전략으로 ▲실직자 재취업 교육, ▲취약계층 취업 지원교육, ▲4차산업혁명 미래인재육성, ▲현장직무역량 향상 교육, ▲산업현장 맞춤형 재직자 직무향상교육 ▲고숙련 인재육성 자격증 취득교육 등이다.

김순정 부센터장은 “2020년 전주비전대는 5대 핵심전략을 성실히 수행해 유관기관과의 직업교육 거버넌스를 하나로 집약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 패러다임에 적응하며 전북 지역경제발전과 실질적인 고용확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2019년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후진학 선도형(Ⅲ유형) 지원대학으로 선정됐으며, 2020년과 2021년에도 한해 최소 10억원씩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정은성기자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18일 도교육청 5층 정책회의실에서 2019 단체협약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은 김승환 교육감과 노재화 전교조 전북지부장, 도교육청 국·과장 및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전북교육청-전교조 전북지부 단체협약 조인

### 2011년 이후 9년만... 총 597개 안전 합의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18일 도교육청 5층 정책회의실에서 2019 단체협약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은 김승환 교육감과 노재화 전교조 전북지부장, 도교육청 국·과장 및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해 8월 요구안이 접수된 이후 두 차례의 정책업무협의회 17차례의 실무교섭과 2회의 추가교섭 등을 거쳐 전문,

105조 479항 7호, 부칙 7조 11항 등 총 597개 안전에 합의했다.

도교육청이 전교조 전북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2011년 이후 9년 만이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교원 업무 정상화'도 합의를 이뤘다.

합의 내용은 ▲사립학교 또는 사학법인이 징계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 ▲사회복무요원 및 교육

공무직 복무관리가 법령에 따라 이뤄지도록 지도·감독 ▲교과서 주문 및 정산 업무 최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영양교육 및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 연회 실시 등이다.

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 양측은 이번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학교현장이 더욱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간 이행에 힘쓰기로 다짐했다.

/정은성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 전주대, 초기창업패키지사업 선정

### 10년 연속... 3년 미만 유망 창업자에 판로개척 등 지원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10년 연속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대학·공공·민간기관 등이 초기 창업기업(3년 이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금지원, 아이템 검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창업아이템을 사업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주대는 지난해 16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총 10억 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멘토링, 지식재산 확보, 판로개척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는 초기 창업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판로개척'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특화분야 사업에 최적화된

전주대만의 창업지원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홍 창업지원단장은 “10년 연속으로 초기창업패키지사업에 선정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 네트워크의 협업을 통해 잠재력 있는 초기창업자를 발굴·검증하고, 지속가능한 창업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기창업패키지(예비)창업자 모집은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나 고급기술을 가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포털사이트,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해 이뤄진다. 전주대는 3년 미만의 유망(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과 창업공간, 멘토링, 판로개척 등을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 출포자동차공고-명신 산학협력 협약

### 전기차 전문인력 양성 '맞손'

출포자동차공업 고등학교(교장 강대중)는 (주)명신(대표 이태규)과 자동차(전기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화석 연료 고갈, 환경오염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친환경 전기차 혹은 수소차로 자동차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산업 현장의 변화에 맞는 교육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양측은 50여 명에 달하는

산업 신기술을 적용한 4차 산업혁명을 교육 현장에 적용해 자동차(전기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뜻을 모았다.

양측의 산학협력은 산업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산업 기술 정보 공유, 직업교육을 통한 산업 현장 신기술 습득 및 전수, 산업체 현장 연수 및 현장 활동 운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성 기자

## 전주교육지원청, 청소년 밀집 지역 방역물품 지원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영민)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일환으로 전주 지역 학생들의 생활 실태 점검 및 청소년 밀집 공간을 중심으로 방역물품 지원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PC방·노래방·실내 스포츠 시설 등 학교 밖 밀폐된 공간에 몰릴 수 있어 학생들의 생활 양상을 파악하고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4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순회를 통한 방식으로 학교 주변과 인근 공원, PC방 등 학군별 청소년 활동이 잦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들

이 밀집하는 장소를 찾아 손 소독제와 살균 세정제 등의 방역물품도 제공한다.

한편 전주 Web센터에서는 심리적 불안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해 고위험군 학생들의 지속적인 상담과 맞춤형 위기 지원을 실시하는 등 전주지역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영민 교육장은 “코로나19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